

# BRICK BY BRICK

**Bricel** : The architecture of home



bricel.

어제의 가구에  
오늘의 나를  
맞추지 마세요  
당신의 리듬에  
맞춰 변화하는  
무한한 유연함

그것이 Bricel 입니다

Don't fit yourself into yesterday's furniture.  
Bricel offers limitless flexibility that adapts to your rhythm and style.



bricel.com

bricel.

# 시작의 철학 \_ 완성이란 한계를 넘다

## 01

우리는 대개 가구나 물건을 살 때 '완성된 형태'를 구매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공간이 변하고, 우리의 취향도 변하죠.  
2024년, Bricel은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물건은 우리 삶의 변화에 맞춰 함께 변할 수 없을까?"**

Bricel은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고정된 디자인의 틀을 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소재인 알루미늄에 주목했습니다.

**Our Philosophy :**  
Beyond the Limits of "Finality"

Typically, when we purchase furniture or objects, we buy them in their 'final form.'  
However, as time passes, spaces evolve, and our tastes shift. In 2024,  
Bricel began with one simple, fundamental question:

**"Why can't the objects we own evolve alongside the changes in our lives?"**

Bricel sought to break free from the constraints of fixed design—  
those rigid structures that cannot be altered once decided.  
To bring this vision to life, we turned our attention to aluminum:  
a material that is remarkably lightweight, yet exceptionally durable.



## 소재의 가치 \_ 알루미늄, 영원한 유연함

# 02

알루미늄은 강하지만 부드럽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닙니다.  
 Bricel은 이 차가운 금속에 '성장'의 가능성을 불어넣었습니다.  
 언제든지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파트를 추가할 수 있는 구조.

Bricel에게 알루미늄은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당신의 상상력을 지탱해 줄 든든한 골격입니다.

**The Value of Material :**  
 Aluminum, Everlasting Flexibility

Aluminum is strong yet supple, possessing a value that remains timeless even as years pass.  
 Bricel has infused the possibility of "growth" into this cool, sleek metal.  
 With a structure that can be disassembled, reassembled, and expanded with new parts at any time,

aluminum is not just a material to Bricel;  
 it is a sturdy framework that supports your imagination.



# 우리의 약속 \_ BRICK by BRICK

## 03

브릭을 하나씩 쌓아 올리듯, Bricel은 당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연결합니다.

조금씩, 단단하게 : 처음엔 작은 모듈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당신의 공간이 넓어질 때, Bricel도 함께 확장됩니다.

취향의 적층 : 오늘의 당신이 좋아하는 색상과 형태를 쌓으세요.

내일 마음이 바뀐다면, 다시 재구성하면 그만입니다.

Bricel은 완성된 상태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의하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입니다.

### Our Promis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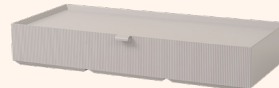
Brick by Brick

Just as bricks are laid one by one, Bricel connects your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Step by Step, Solidly: It is perfectly fine to start with a small module. As your space grows, Bricel expands alongside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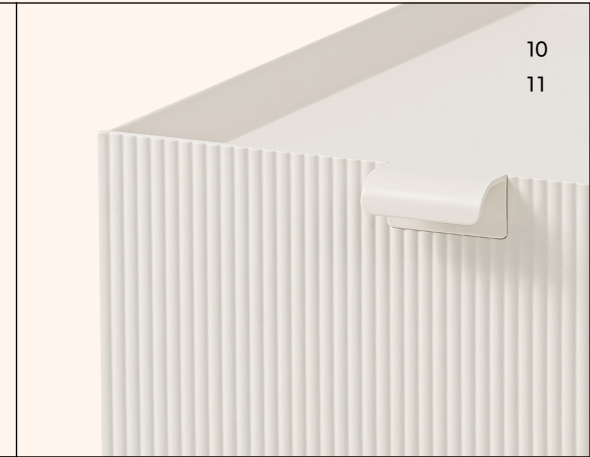
A Layering of Taste: Build with the colors and forms that resonate with you today.

If your heart changes tomorrow, simply reconfigure—it's that effortless. Bricel never remains in a fixed, "finished" state. Being reborn every time your hands touch it—that is what we define as Sustainable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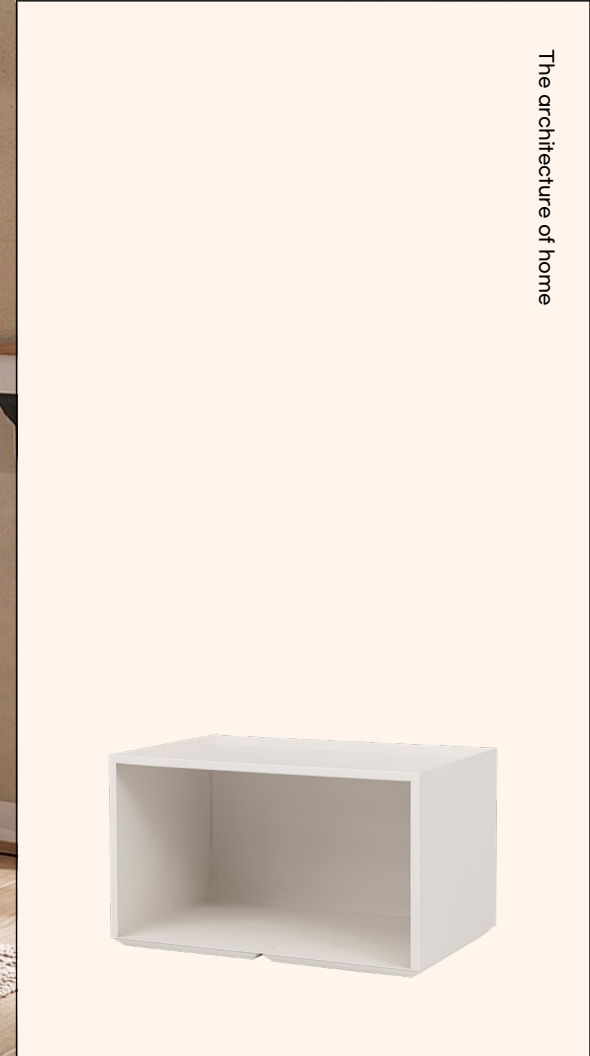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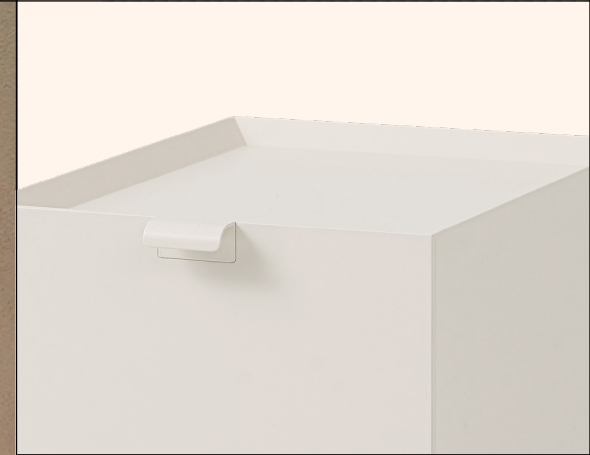


# Brice은 고정된 가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언제든지 모습을 바꾸며,  
지루할 틈 없는 일상의 영감을 채워가는 살아있는 오브제입니다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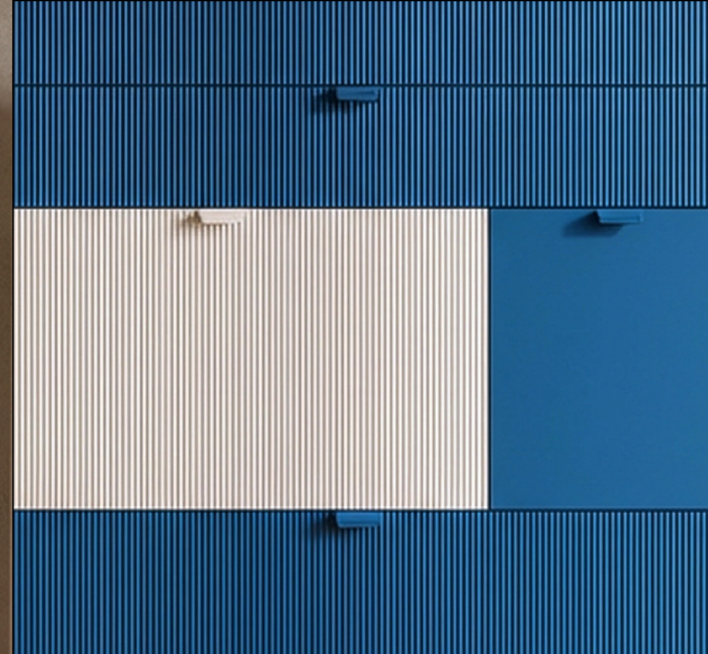


The architecture of home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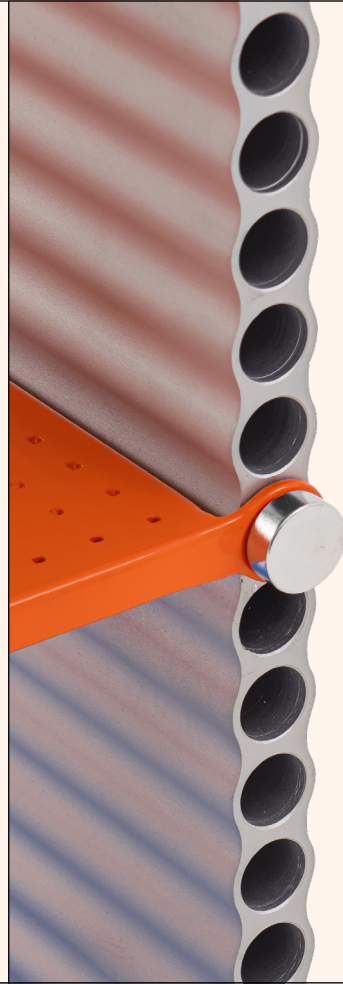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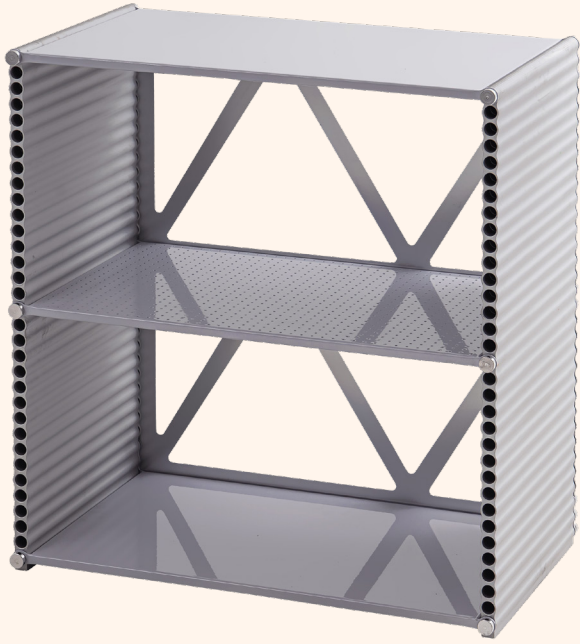
Bricel은 당신의 필요에 따라  
분리되고 다시 합쳐지며,  
매일 새로운 공간의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Experience a world of  
limitless color combinations



The Pipe Rack



Precision in every layer, strength in every line



bricel.